

“개밥주고 구두 닦아라”... 청주대 前총장, 기사 갑질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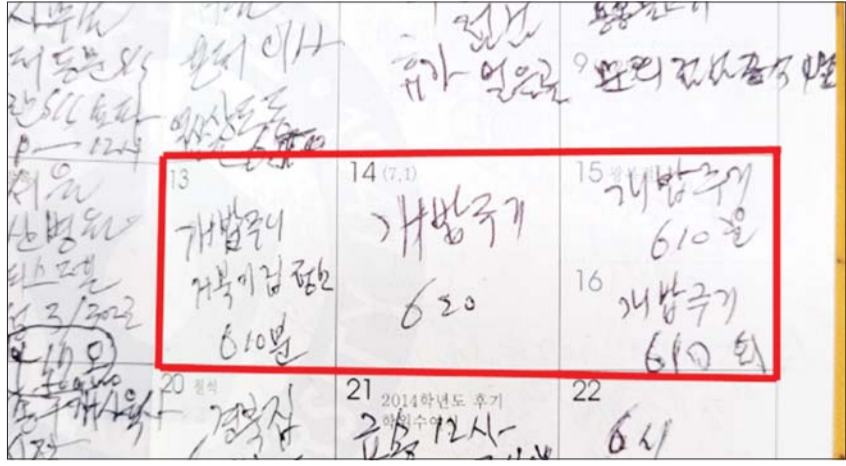
김 전 총장·가족들 운전기사에게 25년간 허드렛일에 폭언 일삼아 靑 청원, 사과, 퇴진 요구 잇따라 일각선 사립학교법 개정 목소리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과 가족들이 운전기사에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등장하면서, 여전히 횡행하는 대학가 권위 층의 ‘갑질’이 청산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재단 이사가 실정법을 어겨도 현직 복귀가 가능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청주대 교수평의회는 김윤배 전 총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성명을 밝히고 “비민주적 갑질 청산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수평의회는 “지역사회에서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대 민주동문회가 김 전 총장의 과도한 갑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유족들은 김 전 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윤배 전 총장은 25년간 일한 운전기사 A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정해진 운전업무 외의 집안일 등 부당한 지시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심근경색으로 사



운전기사 업무수첩

/뉴스1

망했지만, 숨진 아버지의 유류품을 정리하던 딸이 휴대전화기에 남아있던 녹음파일을 발견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수면 위에 올랐다. 운전기사의 업무수첩에는 운전 업무뿐만 아니라 개 선풍기 틀어주기, 개밥 주기, 쓰레기 치우기, 가슴기수리, 분재, 구두 닦아주기 등 허드렛일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김 전 총장의 어머니까지 A씨에게 집안일을 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평의회는 “설립자 3세인 김 전 총장은 2011년 교수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재단 이사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총장으로 임명됐다”면서 “이번 갑질 참사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보다는 사립학교법의 맹점에서 기인하는 구조

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김 전 총장은 청석학원 설립자의 손자로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청주대 총장을,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청석학원 이사를 지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대 민주동문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폭언·갑질을 한 김 전 총장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김 전 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 전 총장의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윤배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교직원에게 퍼부는 막말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바 있다. 김윤배 총장은 이후 재직 시에 발생된 문제들에 책임을 지고 총장직, 이사진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학교법인 청석재단 이사진을 측근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학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김 전 총장이 여전히 자신의 심복으로 청석재단 이사진을 구성하고 청주대의 대학 자치와 민주적 운영구조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대 민주동문회도 “김윤배 전 총장은 청석재단 뒤에서 실제 역할을 중단하고, 청주대의 온전한 대학 자치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퇴진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재단 이사가 실정법을 어겨도 현직 복귀가 가능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대 교수평의회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 구성원들이 재단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부족과 재단 이사들이 실정법을 어겨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라며 “이번 갑질 참사를 계기로 청주대는 물론 전국의 사립대학에 아직도 횡행하는 비민주적인 갑질을 청산할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사이버대(총장 이은주, 왼쪽)는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김사인)과 최근 전문 번역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위탁 교육에 관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서울사이버대-한국문학번역원 전문 번역가 양성 ‘맞손’

서울사이버대는 한국문학번역원과 최근 전문 번역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위탁 교육에 관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사이버대와 한국문학번역원이 전문 번역가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식 후 집중 간담회를 진행해 원격 수업의 운영 과정과 한국문학번역원의 원격 교육 수업 방안 도출을 논의했다. 또한 우수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수업 개선을 지원할 방안을 협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문학 및 문화 콘텐츠 번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사업을 상호 지원하고, 한국문학 및 문화 콘텐츠의 국제, 국내 교류 행사 개최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문학번역원에 재직 중인 직원은 서울사이버대에 입학할 시 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현진 기자

“저소득층 대학생 태블릿PC 신청하세요”

교육부-한국장학재단 900명에 스마트기기 무상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스마트 기기(태블릿PC)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일 대학생 원격수업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

해 ‘휴대용 스마트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푸른등대 디지털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 학생 중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으로 지원 3구간 이하 학생 약 900명이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C학점 이상인 경우 요건에 해당된다.

재원은 한국장학재단의 민간기부

금을 활용한다. 삼성기부금(2억 8500만원)과 하나은행나눔재단 등 5개 기관이 기탁한 기부금(1억 2000만원)을 합해 총 3억 8700만원을 활용한다.

희망 학생은 이달 16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결과 발표는 12월 4일 하며, 기기는 12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온라인 강의.

/뉴스1

덕성여대 ‘안전관리 최우수’ 연구실 선정

덕성여대 약품생화학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2020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서 최우수 인증 연구실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약품생화학연구실은 2014년도에 덕성여대에서 최초로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3번째 재인증 받았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과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덕성여대 약품생화학연구실이 선정된 최우수 인증은 우수 인증을 받은 연구실 가운데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연구실에 부여된다. /이현진 기자

동국대, 지역사회공헌 아이디어톤 대상

제주 메밀 관련 ‘뿌우들~왔덴’ 팀

동국대 LINC+사업단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지역사회공헌연구회에서 주관한 ‘2020 온택트 지역사회공헌 페스티벌’에서 지역사회공헌 아이디어톤 대상(제주대 총장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동국대 ‘뿌우들~왔덴’ 팀은 메밀생산물 전국 1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봉평 메밀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 대해 사전 스터디 및 현장조사, 마을 활동가와 퍼실리테이터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동국대 학생들은 단순 메밀의 마케팅 활성화 방식에 집중하기보단 천(天, 분향당의 토속신앙)·지(地, 마을 자원 메밀)·인(人, 사람을 생각하는



동국대 LINC+사업단이 지난달 31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지역사회공헌연구회에서 주관한 ‘2020 온택트 지역사회공헌 페스티벌’에서 지역사회공헌 아이디어톤 대상(제주대 총장상)을 수상했다. /동국대

마을)을 중요시하는 주민들의 특성과 니즈를 파악해 와흘리 지역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인 ‘분향당’에 중점을 두고 마을의 브랜드화, 스토리텔링화를 통해 제주 지역을 방문하는 도시인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코로나 극복 가족여가 캠페인

두 달간 ‘해봐!해봐! 챌린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여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2020 힘내자 우리가족 함께하자 스포츠-해봐! 해봐! 챌린지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020 힘내자 우리가족 함께하자 스포츠-해봐! 해봐! 챌린지 캠페인’은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몸 튼튼 마음 튼튼 프로젝트’라는 구호로 실시된다. 코로나19 국면으로 신체활동이 감소해 체력이 저하되고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을 가족이 함께하는 스포츠활동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봐! 해봐! 챌린지’ 캠페인은 현재 방역 중인 ‘2020 명랑가족운동해

공익 광고의 후속으로,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캠페인을 전개하며 가족이 함께 하는 신체활동을 제시해 서울교육가족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스포츠(가족이 함께 하는 간단하고 즐거운 놀이 형태의 스포츠)’를 릴레이 형태로 이어나가는 캠페인이다. 직접 촬영 영상을 제작해 참여하는 ‘참여챌린지’와 유튜브 영상에 태그를 붙여 참여하는 ‘태그챌린지’ 두 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참여챌린지’ 부문은 제시된 가족 스포츠를 함께 즐기는 가족의 모습을 개인 SNS 페이스북에 해쉬태그 #해봐해봐챌린지’와 함께 업로드하여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임창환 한양대 교수 대한뇌기능매핑학회 학술상

한양대는 임창환 생체공학과 교수(사진)가 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뇌기능매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2020 뇌기능매핑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뇌기능매핑학회 학술상은 대한뇌기능매핑학회 회원 중 3년간 가장 탁월한 연구업적을 보인 1인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이현진 기자

